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이 1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2025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중장기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현대차

현대차, 전동화 기술로 '위기 돌파' 2030년 글로벌 판매 555만대 목표

美서 CEO 인베스터 데이

올해 中서 SUV '일렉시오' 출시
내년 유럽, 내후년 인도서 '신차'
2030년 연결영업익 8~9% 설정

현대자동차가 전 영역을 아우르는 전동화 파워트레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관세 부담 등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복합위기를 정면 돌파한다.

현대차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더 셰드'에서 글로벌 투자자, 애널리스트, 신용평가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025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고 중장기 전략과 재무 계획을 발표했다.

현대차는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목표로 2019년 도입한 CEO 인베스터 데이를 사상 처음으로 해외에서 개최하며, 그 장소로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의 핵심 도시이자 글로벌 경제, 금융, 문화의 중심지인 뉴욕으로 정했다.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된 이번 행사에서 현대차 호세 무뇨스 대표이사(CEO) 사장과 이승조 재정본부장(CFO) 부사장, 김창환 전동화에너지솔루션담당 부사장, 유지한 차량악티팩처&인테그레이션센터장 겸 자율주행개발센터장 전무 등이 발표자로

나서 현대차의 미래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현대차는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현지 전략형 모델을 대거 선보인다. 현대차는 내년부터 하이브리드, 전기차, EREV,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파워트레인 기반의 신차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출시하며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30년 글로벌 자동차 판매 555만대 달성을 추진한다.

현대차는 올해 중국 시장에 준중형 전동화 SUV '일렉시오'를 출시하고 2026년에는 준중형 전동화 세단을 출시할 방침이다. 두 차종 모두 중국에서 생산되는 현지 전략형 EV다. 이어 내년에는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수요 회복과 대중화를 이끌어 나갈 '아이오닉3'를 출시한다. 인도 시장의 경우 2027년 현지 전략형 SUV 전기차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아 '극기의 친환경차'로 불리는 수소전기차 경쟁력도 확대해 나간다. 현대차는 올해 2세대 넥쏘를 출시한 데 이어 향후 내연기관과 동등한 수준의 주행성능과 내구성을 갖춘 차세대 수소전기차를 지속 개발하는 한편, 승용, 상용을 아울러 FCEV 시장 확대에 집중하기로 했다.

올해 본격 생산을 시작한 미국 현대

차그룹 메타플랜트(HMGMA)에 더해 향후 가동될 인도 푸네공장, 울산 신공장 등 혁신 생산기지들은 현대차의 글로벌 판매 성장을 뒷받침할 근간이다. 현대차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77조 3000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혼돈기 속에서도 글로벌 톱 티어 기업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호세 무뇨스 사장은 "현대차는 글로벌 판매량 확대 및 생산 거점 확보, 다각화된 포트폴리오, 현지화된 운영체계, 그룹사 시너지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자동차그룹 톱 3라는 위치에 올랐다"라며 "불확실성의 시기를 다시 마주했으나, 이전의 경험처럼 또 한 번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미래 모빌리티 회사로 거듭 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는 연결 부문 영업이익률 목표를 ▲2025년 6~7% ▲2027년 7~8% ▲2030년 8~9%로 설정했다. 또 지난해 발표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도 시행하기로 했다. 2025~2027년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을 포함해 매년 최소 35%의 총주주환원률(TSR) 기준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하고, 주당 최소배당금(DPS) 1만원 등의 주주환원정책을 이행할 예정이다.

/양성연 기자 ysw@metroseoul.co.kr

카카오, 500억 투입... 지역 AI생태계 육성

국내 4대 과학기술원과 협력 5년간 AI스타트업 등 지원나서

카카오그룹이 국내 4대 과학기술원과 협력해 500억원을 투자, 지역 AI 생태계 조성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나선다.

카카오그룹은 18일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등 4대 과기원과 함께 향후 5년간 5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지역 AI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AI 스타트업 투자 지원 ▲AI 미래 인재 양성 ▲지역 특화 산업 AI 전환 연구 지원 ▲AI 리터러시(이해력) 증진 등 4대 핵심 과제로 구성된다. 각 과제의 세부 내용은 과기원

들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의 주요 목표는 인재 성장 주기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다. 미래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기부터 스타트업 창업 단계까지 이어지는 교육 과정을 마련,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과 인재를 분산하고 지역 기반의 성장을 촉진한다. 카카오는 이를 통해 교육-연구-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지역 산업 전반의 AI 전환(AX)을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4대 과기원과 함께 새로운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해 연구 성과의 사업화와 글로벌 진출을 촉진한다. 카카오그룹의 투자 전문 자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는 과기원 내 우수 인재들이 창업한 AI 스타트업에 초기

자금을 투자하고, 카카모빌리티·카카오뱅크·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페이 등 그룹 주요 계열사 전문가들이 멘토링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창업 지원과 산업 현장 연결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카카오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거점 모델을 구축하고, 국가 AI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단순한 연구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산업화와 글로벌 진출까지 연계하는 실질적인 AI 육성 허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 AI 인재와 스타트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 기반에서 세계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최빛나 기자 vitna@

8만전자 도달... 삼성 '11만 전자' 가나

HBM·D램 등 반도체 업황개선 조짐
27개 공모펀드에 3개월간 484억 유입

미국 빅테크(거대 기술기업) 호황에 따른 K-반도체 업황 기대감에 삼성전자 주가가 뿔뿔 날자 삼성그룹주를 담은 펀드도 호재를 맞았다. 지지부진했던 수익률도 최근 반전됐을 뿐 아니라 투자자들의 자금도 빠르게 유입되며 덩치를 키우고 있다.

18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그룹 관련 27개 공모펀드에 최근 석 달 동안 484억원, 여섯 달 동안 1566억원이 유입됐다.

그룹주 펀드의 비중이 가장 큰 삼성전자 주가가 '8만전자' (주가 8만원)에 올라설 정도로 상승세를 타고 있어서다.

삼성전자의 상승 배경은 첨단 반도체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외에도 D램과 낸드 메모리 등 범용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조짐이 보이면서다. 인공지능(AI)이 보편화되고 챗GPT 등 AI가 응답을 생성하는 '추론'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범용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이 줄어들면서 국내 반도체업체엔 유리한 상황이 됐다.

외국인도 사고 있다. 외국인인 이달

들어 3조원 넘게 삼성전자를 장바구니에 담았다.

증권가에선 삼성전자가 '11만전자'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IBK투자증권은 이날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주가를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올렸다. 투자이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김운호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2025년 3분기 실적에 전망치를 크게 상회할 전망"이라면서 "매출액은 87조8000억원, 영업이익은 10조4000억원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디바이스솔루션(DS) 실적 개선이 주요 원인"이라면서 "D램은 제품 믹스 개선으로 차별화된 평균판매가격(ASP) 상승이 기대되며, 낸드 가격 상승과 비메모리 사업부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메모리 업황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이전 전망 대비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 중인 가운데 갤럭시Z 폴드 역시 이전 전망보다 판매량이 많다"면서 "연말까지 이익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B증권도 업황 개선·IT수요 회복 등 베스트 시나리오에선 삼성전자 주가가 최고 11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8만8800원에서 9만6000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가 18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해킹 사고로 인한 고객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고 고개 숙여 사과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고객에 손실 전가 안해... 피해액 전액 보상”

롯데카드, 297만명 고객정보 유출
조좌진 대표 “심려 끼쳐 죄송하다”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28만명은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번호까지 노출돼 피해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카드 측은 피해 고객에게 유출 안내 메시지를 전송하고, 무이자 10개월 할부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18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해킹 사고 관련 언론 브리핑을 열고 “고객 여러분, 유관 기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발표된 유출 피해 고객은 총 297만명이다. 유출된 정보는 지난 7월 22일과 8월 27일 사이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 및 수집된 데이터로 ▲연계정보(CI) ▲가상결제코드 ▲내부식별번호 ▲간편결제 서비스 종류 등이다.

이 중 28만명의 고객은 카드재발급이 필요한 유출 피해 고위험군으로 분류됐

다. 유출 정보에는 카드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CVC번호에 더해 주민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포함됐다.

조 대표는 “전체 유출 고객 중 유출된 고객정보로 카드 부정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총 28만명”이라며 “이들에게는 카드 재발급 안내 문자를 추가로 발송하고, 안내전화를 병행해 카드 재발급 조치가 최우선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반적인 고객보호 조치도 약속했다. 조 대표는 “어떠한 손실도 고객에게 전가하지 않겠다”며 “롯데카드가 책임지고 피해액 전액을 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객정보가 유출된 고객 전원에게는 연말까지 금액과 관계없이 무이자 10개월 할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겠다. 28만 고객의 경우 카드 재발급 시 차년도 연회비를 한도 없이 면제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연말까지 금융피해 보상 서비스인 크레딧케어 무상제공과 카드 사용 알림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